

석유 · 화학 연봉 3번째로 높다!

잡코리아, 2637만원으로 금융 · 중공업 다음 ... 채용시장 한파

2005년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 평균 연봉은 2637만원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국내 대기업 130곳을 대상으로 2005년 대졸 신입사원 연봉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봉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업으로 3197만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조선·중공업 3078만원, 석유·화학 2763만원, IT·정보통신 2672만원 순이다.

한편, 2005년 주요 기업의 채용규모가 2004년보다 13% 줄어드는 등 취업시장이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2005년 아예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기업도 2배 이상 늘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상장·등록기업 5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채용전망>에 따르면, 2005년 <채용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213곳(42%)으로 2004년 조사(41.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21.3%(108사)로 2004년(9.2%)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전체 채용규모는 1만6764명으로 2004년 1만9274명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크루트는 “2004년에는 청년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채용을 늘린 기업들이 많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회복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채용여력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금융 및 자동차 업종과 일부 그룹에서 아직까지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여서 대기업의 선택에 따라서는 2005년 취업시장이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4/12/29>